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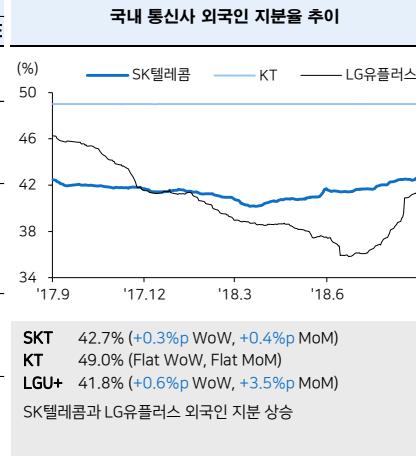
2018.9.17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1.6	3.2	-3.6	-7.0	9.2	9.2	1.0	1.0	2.0	2.0	
통신업종	4.7	4.8	15.4	17.7	8.3	8.3	0.9	0.9	3.4	3.4	
SK텔레콤	5.1	4.7	18.1	15.7	6.9	7.1	1.0	0.9	3.7	3.7	
KT	0.7	0.7	3.0	4.7	10.6	10.4	0.6	0.6	3.7	3.9	
LG유플러스	8.6	4.6	26.9	32.3	13.3	12.5	1.2	1.1	2.6	2.8	
AT&T	4.6	1.5	1.4	-9.2	9.6	9.2	1.3	1.3	6.0	6.1	
Verizon	1.0	0.5	13.5	12.3	11.7	11.5	4.1	3.4	4.4	4.5	
T-Mobile	6.0	3.4	13.7	5.4	21.0	17.2	2.3	2.1	0.0	0.0	
Sprint	6.7	3.8	15.7	18.5	32.7	577.3	1.0	0.9	0.0	0.0	
NTT Docomo	3.8	-0.2	3.5	7.2	15.1	15.0	1.9	1.8	3.4	3.7	
KDDI	4.0	-2.7	0.2	12.7	12.9	11.8	2.0	1.8	3.0	3.3	
Softbank	10.1	9.6	31.5	27.2	11.0	15.4	2.3	2.0	0.4	0.4	
China Mobile	1.7	6.1	9.5	6.4	11.9	11.7	1.3	1.3	4.1	4.2	
China Unicom	2.8	3.9	-5.8	-1.9	30.1	19.0	0.8	0.8	1.3	2.0	
China Telecom	-4.0	7.9	4.7	11.1	13.4	12.3	0.8	0.8	3.1	3.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9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9%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 이슈가 부각되며 LG유플러스 주가는 +8.6% 상승
한편, SK텔레콤은 보안 이슈 등을 고려해 5G 통신 장비에서 화웨이를 배제
국내 기관은 SK텔레콤과 KT 순매수,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KT의 통신 장비 제조사 선정 상황에 주목
'국민 통신사'로서의 소비자 인식을 고려 시, 화웨이 선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KT가 화웨이 배제 시, 삼성전자는 국내 접두율을 유지하며 해외에서도 고객사를 넓혀갈 전망
한편, 투자자들의 관심은 단기적으로 LGU+와 CJ헬로 사이의 인수 합병 이슈에 집중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	10	11	12 MWC 아메리카 2018 개막	13	14 MWC 아메리카 2018 폐막	15
16	17	18	19	20	21	22

3

주간 뉴스

▶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유력'...향후 변수는?

(녹색경제)

- 일부 언론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1조 4000억원 안팎으로 인수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
- 내부적 인수 가격 논란, 딜라이브 매각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등 여려 걸림돌이 남은 상태
- CJ헬로가 지난 달에 벌인 딜라이브 실사 작업은 물값을 올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 양 사이의 주간 수익률은 LG유플러스 +8.6%, CJ헬로 -7.4%를 기록하며 인수에 대해 상반된 반응
⇒ 인수 시 유료방송 시장 통폐합 가능성: 딜라이브 등 남은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삼성, AT&T에 5G장비 공급...美 공략 본격화

(ZDNet Korea)

- AT&T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에릭슨, 노키아 등으로부터 5G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
- AT&T는 연내 5개 도시에서 5G 도입 계획. 이후 내년까지 19개 도시에서 5G를 상용화시킬 계획
- 베라이즌 역시 3시즌 5G 장비로 선정. 스프린트도 해당 업체들이 균등하게 공급한다고 발표
⇒ 삼성전자 북미 공략 가능화: Dell'Oro에 따르면 상반기 삼성전자 북미 매출 점유율은 3배 증가
⇒ 삼성전자에 5G 장비를 납품 중인 국내 통신장비 업체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SK텔레콤 5G 통신장비 "화웨이 안쓴다"

(전자신문)

- SK텔레콤은 5G 장비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존 LTE와 동일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선정
- 화웨이는 결국 제외. 중국에 5G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에 더해 정부 경제 및 국민 여론을 고려
- KT는 장비사 선정에 막판까지 고심 중. 여론 감안 시 화웨이 선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 이통사가 화웨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전존. 5G 운영 과정에도 장비사 교체가 가능
⇒ 한편, 인도에서도 화웨이를 배제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여론 악화

▶ KT, 4차 산업 핵심분야에 5년간 23조원 투자

(ZDNet Korea)

- KT그룹은 10일 5G,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향후 5년간 23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
- 융합 ICT 분야 3.9조원, 5G 등 네트워크 분야 9.6조원, IT 고도화와 그룹사 성장에 9.5조원 등
- 또한, 5G망 구축, 장비 공급, 서비스 개발에 있어 중소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 중소기업 참여 가능한 규모는 2조원대로 추산. 이미 협의체를 구성해 중계기 등 장비를 개발 중
⇒ 이통사들의 5G 투자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제조 업체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

▶ 알뜰폰 도매대가 올해도 인하... "알뜰폰 원가부담 215억 경감"

(Digital Times)

- 저가 요금 구간은 종량도매대가를, 중고가 요금 구간은 수익배분대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합의
- 종량도매대가는 데이터 MB 당 3.65원(-0.86원) 및 음성 분당 22.41원으로(-3.99원) 인하
- 논란이었던 'SK텔레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는 이통사 뒷수 51.5%(-3.5%p)로 낮추기로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지난해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
⇒ 이외에도 우체국 입점업체 확대, 판매망 확대 등 다양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

▶ SKT, 광·사이판 이통사 'IT&E' 2대주주 됐다

(ZDNet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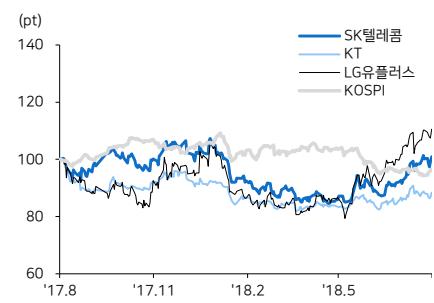
- SK텔레콤이 광·사이판 현지 이통통신사 IT&E에 350억원을 투자, 2대 주주에 올랐다고 발표
- IT&E는 사이판 기준 독보적인 1위. 광·사이판 전체 기준 도코모파시픽, GTA와 대등한 점유율
- IT&E는 현재 5G 주파수 28GHz 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사이판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
⇒ SK텔레콤은 같은 날 광·사이판에서 로밍요금이 0원인 신상품 출시. 양사 제휴의 효과로 해석
⇒ 한편, 12일 KT는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발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77,000	19.9	15.1	15.4	1.2	1.3	2.8	2.7	4.1	4.2	5.9	5.7	16.7	14.0
	KT	29,150	6.8	20.8	21.1	1.2	1.2	0.6	0.7	4.2	4.3	2.6	2.6	5.9	5.7
	LG유플러스	17,000	6.6	10.9	11.1	0.8	0.8	0.5	0.5	2.2	2.3	4.0	3.8	9.9	9.6
미국	AT&T	33.6	244.0	173.6	185.6	33.6	37.8	23.6	26.4	56.0	60.5	7.5	7.0	14.3	15.5
	Verizon	54.6	225.4	130.7	131.9	29.5	31.1	19.1	20.1	47.5	48.8	7.2	7.0	38.7	33.1
	T-Mobile	68.3	57.8	43.0	45.3	5.3	5.9	2.7	3.3	12.0	12.9	7.4	6.8	12.9	12.2
	Sprint	6.4	25.8	32.4	32.9	2.6	2.4	5.5	0.0	11.1	12.4	5.3	4.7	14.1	0.6
일본	NTT Docomo	2,960	99.9	44.2	43.3	9.1	9.1	6.7	6.4	13.9	13.9	7.4	7.1	12.6	12.2
	KDDI	3,045	68.8	45.8	46.2	9.0	9.2	5.3	5.5	14.1	14.3	5.9	5.7	15.6	15.8
	Softbank	10,945	107.5	83.8	84.1	11.6	12.1	9.9	6.7	25.0	25.2	10.3	10.0	22.0	13.1
중국	China Mobile	76.9	200.7	110.3	113.3	17.9	17.9	16.9	17.2	40.7	42.0	3.3	3.2	11.7	11.2
	China Unicom	9.5	37.0	41.6	43.7	1.4	2.4	1.2	2.1	12.8	13.6	3.0	2.8	2.5	4.2
	China Telecom	3.8	39.3	55.8	58.0	4.3	4.6	2.9	3.2	15.4	16.0	3.2	3.0	6.1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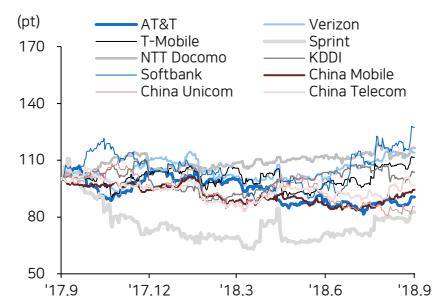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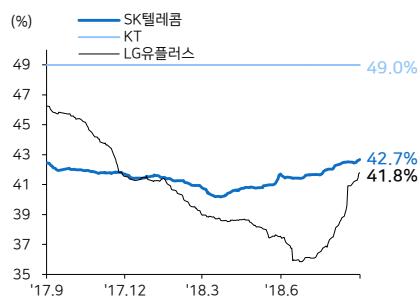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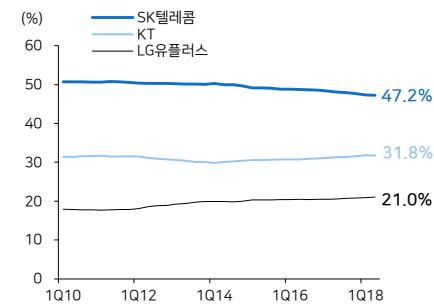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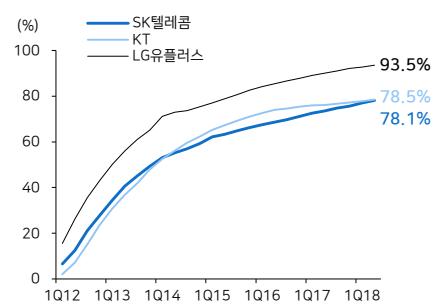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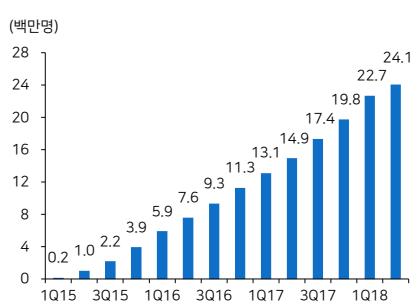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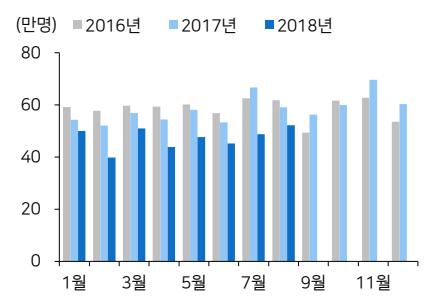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회원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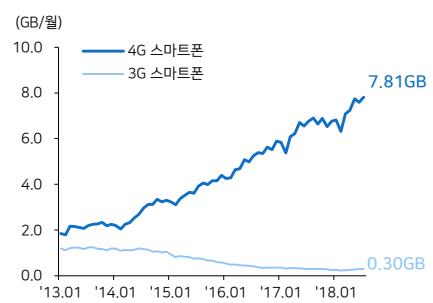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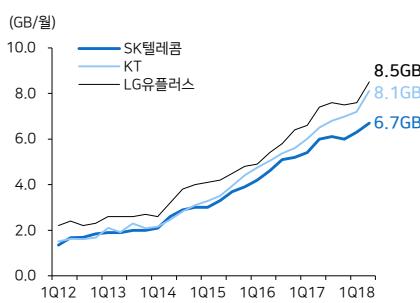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1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